

처음 표적

요한복음 2:1-12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을 유대에서 하셨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어떤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다. 아마 그 혼인잔치는 어떤 친척관계가 있었지 았았나 생각된다. 아무튼 그 혼인 잔치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 혼인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났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처음 표적이라고 요한은 말한다.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은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I. 순종한 아들로서의 영광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은 민망할 정도로 거절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 다(2)” 당시의 풍습으로는 어머니를 “여자여” 고 불렀다고 해서 그 말이 불경한 말은 아니라고 한다. 예수님은 결코 불경한 태도로 마리아에게 대한 것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이 말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5섯 번 정도 사용된 말이다.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사역을 중단케 하실 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이여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 8:29)이렇게 항의 하였다. 귀신이 가장 싫어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간섭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는 표현은 강한 거절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고 말씀 하신 것은 그 어머니의 청을 강하게 거절했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한 이유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고 말씀 하신다.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 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반복 된다. 7:30, 8:20, 12:27, 12:23-24 을 보라.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산다는 의미이다.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써 사명을 수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아들이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아들의 자격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로서의 영광을 보고 믿은 것이다.

죄는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율법이 좋은 줄 알지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힘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랴(롬 7:2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Active obedience)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다.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Passive obedience)이라고 한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두가지 순종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II.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이유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밀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십자가의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한 말이다. 마리아는 그의 처음 기도가 거부 당하였지만 계속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한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다.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리고 하셨다. 그 물은 이미 극상품 포도주로 변했다.

결례에 사용할 물이 맛 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 시킨 것이다. 결례의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 시켰다는 것은 결례의 물로 깨끗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로 깨끗케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시하신 것이다. 우리는 결례의 물을 통해서 깨끗케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결례의 물을 통해서 십자가 능력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예시해 줌으로 결국 그 어머니의 청을 들어 준 것이다. 그 어머니의 청을 어머니의 방식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

어 주신 것이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여 당황 할 때가 있지만 지내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 변화의 기적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시켜 주신다는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맛 없는 물이 맛 있는 포도주로 변화 된 것과 같이 무가치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같이 무가치한자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살펴 보고 늘 감사하며 더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최근에 나는 옛날에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으나 완전히 잊어 버렸는데 새롭게 그 책을 읽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 그 책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 시켜 주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서 읽어 보기를 바란다. 그 책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앤드류머리 저)이다.

III.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신랑의 영광

우리는 요한복음 3:29-30절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세례요한은 신부를 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그 친구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친구로서 신랑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했다.

본문 2:9,10절에서 혼인집에서 신랑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 말이다. 이 말속에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이 신랑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신랑은 포도주를 공급하는데 실패 했고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인간 신랑이 실패 한 것을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 진정한 신랑이 되신 분이시다.

인간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없다. 신랑 되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의 신부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고 있는가? 신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고 있는가?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어떤 부족을 느낄 때 여러분의 인간 신랑만 쳐다보지 말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참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첫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고, 둘째,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깨끗케 하신 분으로서, 셋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5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11)”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그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였다(요한복음 14:12).

나는 은퇴를 하고 시골에서 살면서 나 나름대로 새로운 사역을 꿈꾸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자 준비를 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셨듯이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고 내 나름대로 사역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꿈과 계획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믿음의 불씨를 살려 주었다. “목사님은 100시대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경험과 실력을 꼭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안식년 기간 동안 서울에 거하면서 내가 거주했던 당진까지 매주 내려와 새로 시작한 영어 성경부반에 참석해 주었다. 그들의 믿음의 격려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격려로 유튜브 방송도 하게 되었다. 믿음의 격려는 돈이 든 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